



#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



# 산업통상정책의 부상

## 산업통상 정책의 부상

- 미국 IRA, 유럽 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통상정책 확산 추세
-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배터리산업은 글로벌 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의 종말

- 시장주의·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23.4,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China Shock」 우려 및 「경제안보」 중요성 점증 → 시장기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 필요성 증대

### 산업통상정책 확산의 배경 : 기후위기 및 미중갈등

-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더 나아가 친환경 新시장 선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 격화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 위한 미국 및 美우방국 중심의 "A small yard with high fence" 추세 확대

### 기후위기·미중갈등 최전선에 선 배터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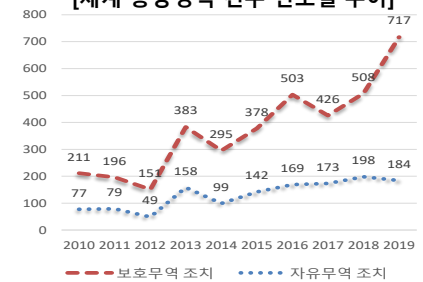
- 배터리는 전동화, 탈탄소화, 무선화 등 미래 산업패러다임 변화의 핵심기술 → 각국은 미래 경제산업 패권 확보를 위한 배터리 산업 정책 강화
- 원료, 소재 등 업스트림 부문의 강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최강국으로 부상
- 美 IRA, EU 배터리법 등이 주요국의 대표적 산업정책

[세계 산업정책 건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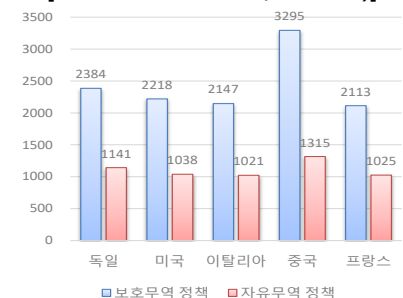
자료 : Juhasz et al.(2022), The who, what, when, and how of industrial policy: a-text-based approach

[세계 통상정책 건수 연도별 추이]



자료 : Global Trade Aler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가별 통상정책 건수('88~'20 누계)]



자료 : Global Trade Aler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美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 ■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 ❶ 친환경차의 최종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❷ 탑재된 배터리가 IRA 요건 충족시,  
⇒ 대당 \$7,500 상당의 EV 세액공제 부여

## ■ IRA 배터리 요건 주요 내용

### 광물 요건

- 광물 전체 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美 FTA 체결국에서 창출시 요건 충족 인정
  - \* '27년부터 TQA(Trace Qualifying Value) 방식 적용
- 양극재, 음극재 등 주요 소재의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으로 인정

### 부품 요건

- 부품 전체 가치의 60% 이상이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되어야 함.
- 북미 지역에서 제조해야 하는 부품 범위에 양극재, 음극재 등 제외
- 부품 범위는 양극판(cathode electrode), 음극판(anode electrode), 분리막(separator), 전해질(electrolyte), 셀(cell), 모듈(module)로 정의

자료 : 환경인 외(2024)

## ■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평가

- ❶ 북미에서 배터리 셀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우리 배터리 업계의 부품 요건 충족이 용이  
✓ 배터리 업계는 북미 공장에서 양극판 및 음극판과 셀, 모듈을 제조 중
- ❷ 핵심광물 가공의 인정 범위 확대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광물요건 이행 부담 완화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제조업체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
  - 2023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이 완료되고 미국내 판매된 제품
  - 2030년 이후 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년 75% → 31년 50% → 32년 25%), 2033년부터 폐지
- 적용 대상 : 태양광, 풍력, 핵심광물, 배터리
  - 배터리의 경우 셀과 모듈(팩)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시 혜택
  -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팩)은 kWh당 10달러 규모 → 최대 45달러 세액공제 가능

##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품목별 지원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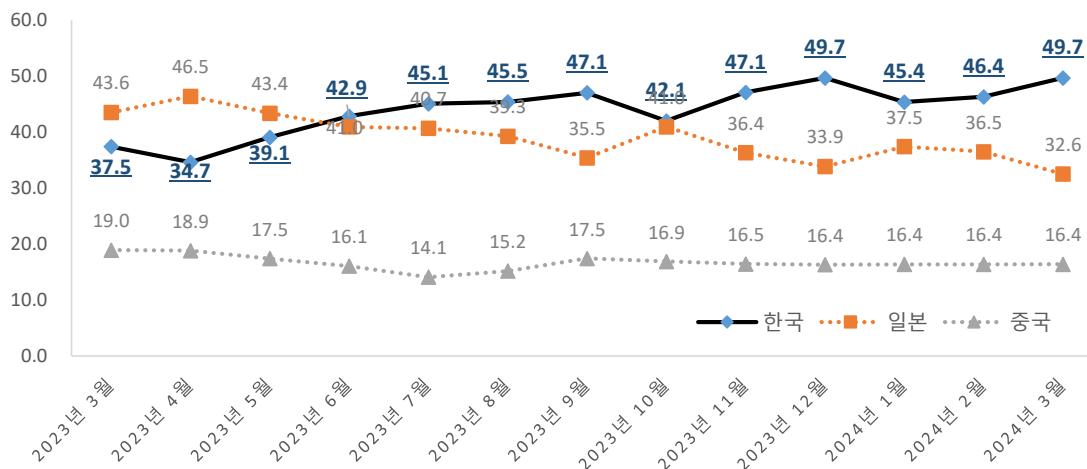
구분	세액공제 지원규모	비고
배터리	(셀) 35\$/kWh, (모듈·팩) 10\$/kWh	
태양광	(태양광 모듈) 7¢/W, (광전지) 4¢/W, (광전지 웨이퍼) 12\$/m <sup>2</sup> , (폴리실리콘) 3\$/kg 등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리튬, 니켈 등 50종

# 美 IRA의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

## ■ IRA 요건 충족 배터리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수주 확대 등을 통해 美시장 판매량 증가 전망

- IRA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시 친환경차 대당 \$7,500 세액공제 부여
- 우리 기업들은 IRA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 가능한 것으로 평가

<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 황경인(2024)

## ■ 국내産 배터리 소재도 IRA 요건 충족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 기대

- IRA 가이드스 발표('23.4)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주요 소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 최근 IRA 요건 충족을 위해 중국 등 해외 배터리 소재기업의 한국내 투자도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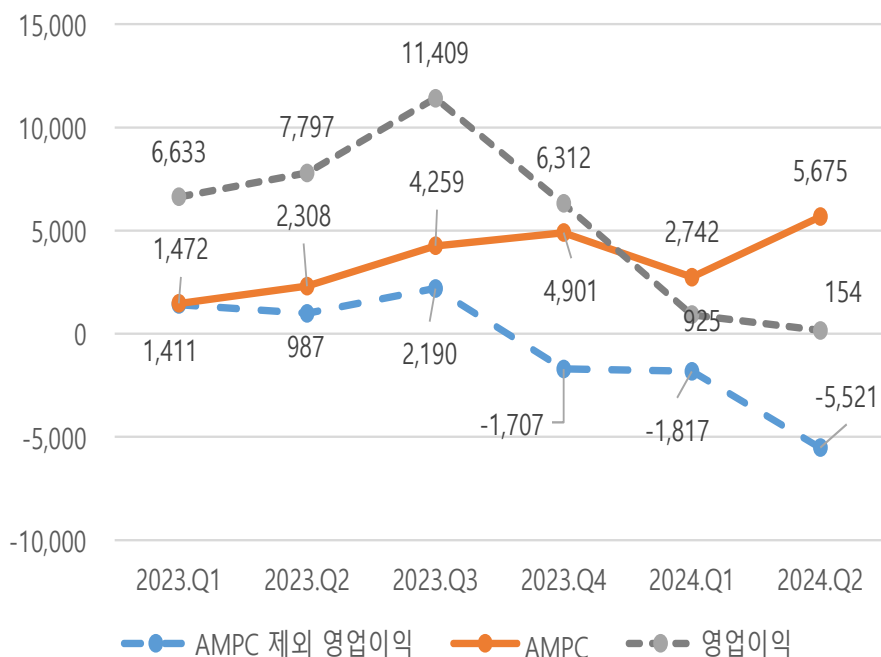
- 양극재 등 소재 부문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가, 고용 확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美 IRA의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계속)

## ■ 미국 내 생산 CAPA 확장 중인 국내기업은 생산세액공제 Credit 확보로 수혜 예상

- 국내 기업이 미국 내 배터리 셀/모듈 생산 시 최대 \$45/kWh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우리 기업은 미 시장내 선제적, 압도적 생산 CAPA 확보 중
- '30년 이후 점진 축소 구조 고려시 美투자 규모·속도가 앞선 국내 이차전지 기업이 가장 큰 수혜 예상

< 한국 배터리 산업의 AMPC 추이 >



자료 : 황경인(2024)

< 한국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 및 AMPC 현황 >

시점	업체명	매출	영업이익	AMPC	AMPC 제외 영업이익
2023년 1분기	LG에너지솔루션	87,470	6,332	1,000	5,332
	SK온	33,053	-3,449	472	-3,921
	삼성SDI	53,550	3,750		
	계	174,073	6,633	1,472	1,411
2023년 2분기	LG에너지솔루션	87,730	4,610	1,110	3,500
	SK온	36,961	-1,315	1,198	-2,513
	삼성SDI	58,406	4,502		
	계	183,097	7,797	2,308	987
2023년 3분기	LG에너지솔루션	82,240	7,310	2,160	5,150
	SK온	31,727	-861	2,099	-2,960
	삼성SDI	59,481	4,960		
	계	173,448	11,409	4,259	2,190
2023년 4분기	LG에너지솔루션	80,010	3,380	2,500	880
	SK온	27,231	-186	2,401	-2,587
	삼성SDI	55,648	3,118		
	계	162,889	6,312	4,901	-1,707
2024년 1분기	LG에너지솔루션	61,290	1,570	1,890	-320
	SK온	16,836	-3,315	385	-3,700
	삼성SDI	51,310	2,670	467	2,203
	계	129,436	925	2,742	-1,817
2024년 2분기	LG에너지솔루션	62,162	1,953	4,478	-2,525
	SK온	15,535	-4,601	1,118	-5,719
	삼성SDI	44,500	2,802	79	2,723
	계	122,197	154	5,675	-5,521

자료 : 황경인(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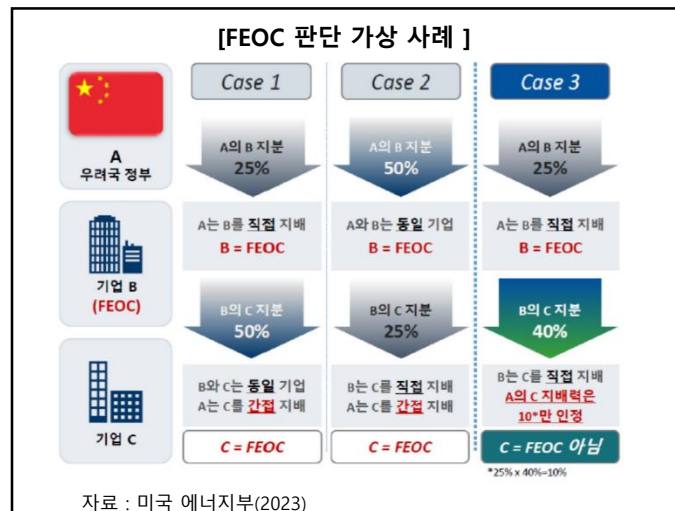
# IRA 해외우려기관(FEOC) 제도

## ■ IRA는 FEOC로 부터 광물과 부품 조달받을 경우 EV 세액공제 수혜 불가 규정

- FEOC를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4개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법인으로 정의  
("Being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 제3국 기업이라고 해도 4개 우려국 정부가 지분, 의결권 등 25% 이상 보유 시 FEOC로 간주

## ■ 美시장 판매시 FEOC 공급망 배제 불가피, 새만금 등에서 추진 중인 한-중 JV에 직접적 영향

- 한-중 JV 중 中지분 25% 이상인 합작투자는 지분 조정 불가피
- 2024년 이후 : ①FEOC 적용 시작, ②IRA 준수비율 연 10%p씩 증가 →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불가피



**[한-중 기업간 배터리 분야 JV 사례]**

기업명		지역	주요 사업	투자 규모
중국기업	한국기업			
화유코발트	LG화학	새만금	전구체 생산	1.2조원
	포스코퓨처엠	포항	전구체 및 음극재 생산	1.2조원
	포스코홀딩스	전남	이차전지 재활용	1,200억원
CNGR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항	니켈 정제 및 전구체 생산	1.5조원
거린메이(GEM)	에코프로, SK온	새만금	전구체 생산	1.2조원

자료 :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

# 최근 배터리 업황과 미국 시장의 중요성

## ■ (최근 업황) 세계 전기차 성장세 둔화 속 유럽, 아시아 등에서 韓 배터리 기업 점유율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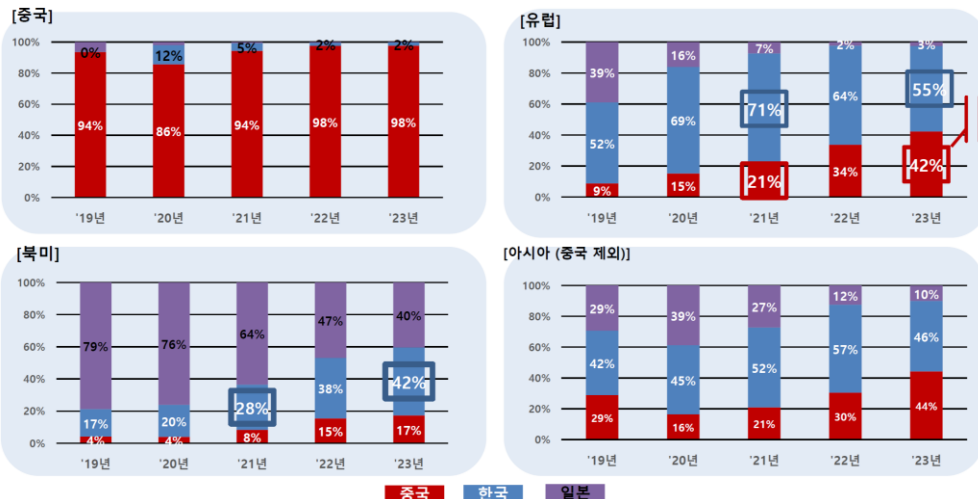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감소 : '22년 60% → '23년 33% → '24년<sup>(E)</sup> 19%
- 특히, 배터리 업황과 직결된 BEV 판매 크게 부진 → 유럽 BEV 시장은 **역성장세**(-2.2%, '24上) 돌입
-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경제권에서 韓배터리 기업 점유율 지속 하락 중

\* 배터리 용량(정규화) : BEV 100, PHEV 20, HEV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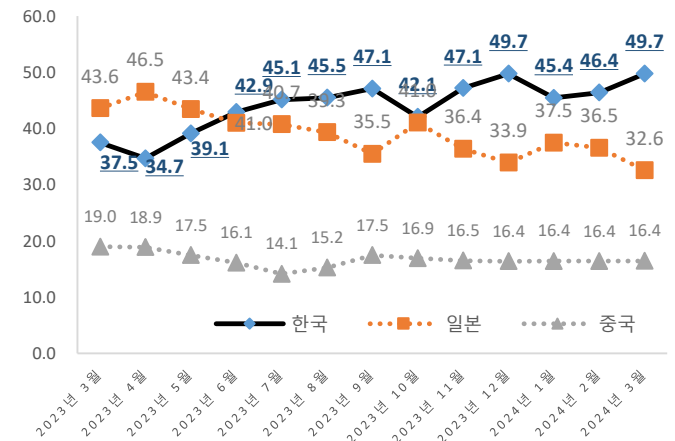
## ■ (美시장 중요성) 미래 성장성, 韓기업 성과 등 고려 시 韓 배터리 산업에 가장 중요한 시장

- 美 배터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 → '20년 21GWh에서 '23년 110GWh로 5배 증가
- 글로벌 업황 부진 속 IRA 시행 이후 美시장 점유율 확대가 韓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 역할 수행

< 주요 권역별 한·중·일 3국의 점유율 추이 >



< IRA 배터리 요건 적용 전후 한중일 3국 점유율 비교 >





# 트럼프 행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전망

## 트럼프 주요 공약으로 본 미 新행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전망

### 트럼프의 주요 공약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 전망

#### 무역·통상

- 보호무역, 미 우선주의
- 수입품 보편관세 10% 부과
- 대중 고율관세 60% 부과

#### 공급망

- 리쇼어링 및 국내 생산 우선
- 미국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 바이든은 미국 및 美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 환경·에너지

- 파리기후협약 탈퇴
- 전기차 보급 회의론
-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 첨단제조

-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 \* CHIPS 보조금은 유지 전망 우세



①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지원 축소

②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지원 축소

③ CAFÉ 등 내연차 규제 완화

④ 전기차 및 배터리 관세  
인상

# 미국 신정부 출범 후 IRA 폐지 가능성 검토

## ■ IRA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

- 법의 폐지는 관련 법안의 상·하원 통과가 필요
-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양원 모두 장악했으나 공화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 ↑

\* IRA는 공화당 지지 지역이 더 많은 수혜 → 공화당 우세지역(오하이오/인디애나/테네시) 및 경합지역(미시간/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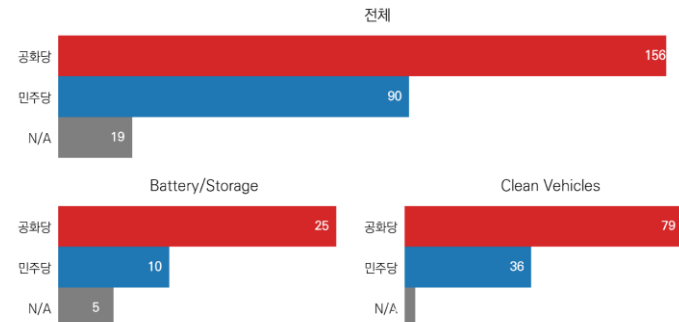
## ■ 트럼프 집권 후 행정부 권한 활용해 IRA 지원규모 축소 가능

- 이미, IRA 법안 발효 후 재무부 추가지침('22.12) 등을 통해 지원요건 등 세부조항 조정한 사례 있음.
- 지원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세액공제 혜택 차종과 생산보조금 수혜 범위 감소시키는 방식 可

### [사례 :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 트럼프 취임 직후 공화당이 양원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실패
  - 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폐지 법안 통과
  - 상원에서는 이탈표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
-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IRA 폐지안이 부의될 경우 IRA로 수혜를 받는 공화당 개별 의원 설득이 관건

### [IRA에 영향 받은 미국내 투자 건수]



자료 : E2, Clean Economy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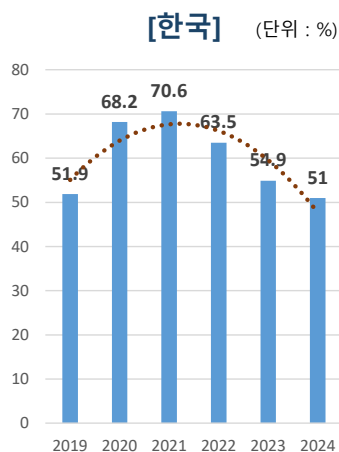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배터리 산업 영향

- **트럼프(공화당 대선후보) 집권 이후 내연차 규제 완화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될 전망**
  - 트럼프 재집권시 1기때와 마찬가지로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규제(CAFE) 완화 가능성 큰 상황
- **IRA 지원규모 축소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전면적 재조정 불가피**
  - 2022년에 발효된 IRA에 힘입어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미국내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 IRA 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시 미국 투자로부터 기대했던 美시장점유율 상승, 수익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
- **트럼프 승리로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 심화**
  - IRA 배터리요건 준수비율 강화, FEOC 시행 등 중국 광물 및 부품 배제 원칙 강화
  - 트럼프 집권으로 중국산 제품 관세 확대,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 심화(재정 지출규모 축소 방향성에도 부합) 등 실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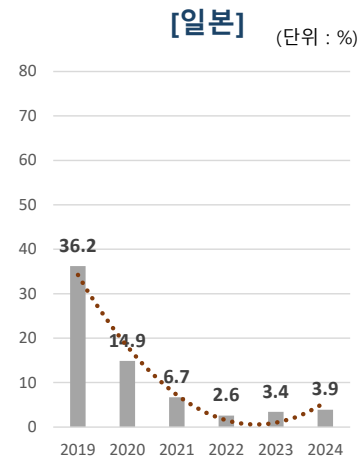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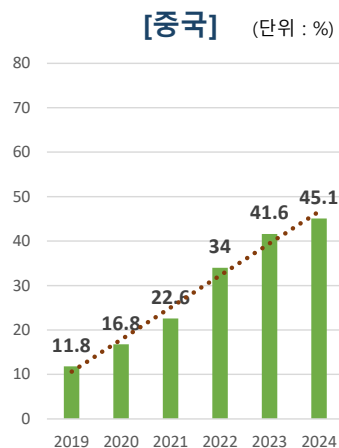
# 유럽 배터리 시장 현황

- 한국 기업은 일찍이 EU 시장에 진출하여 배터리 양산을 시작, 경쟁국 대비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보유
  - EU 내 한국 기업의 배터리 셀 생산 CAPA는 '22년 116.5GWh로 증가하여 EU 전체의 42.5% 차지
  - 양극재 對EU 수출액 '16년 617만 달러에서 '22년 46.7억 달러로 750배 증가
-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3사 합산)이 2023년(연간) 54.9%에서 2024년 51.0%(2Q까지 누계)로 감소
  - 반면에 중국 기업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2023년(연간) 41.6%에서 2024년 45.1%(2Q까지 누계)로 증가 추세
  - 중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 유럽 내 생산 CAPA 및 점유율은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

< 한중일 3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2019~2024) >



자료 : 황경인(2024)



# EU 배터리 정책 : ESG 규제 확대 및 역내 제조역량 강화

## ① EU 배터리법 6.14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23년 8.17 발효, '24년 2월 공식 적용 시작

- ✓ 탄소발자국 신고,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의무,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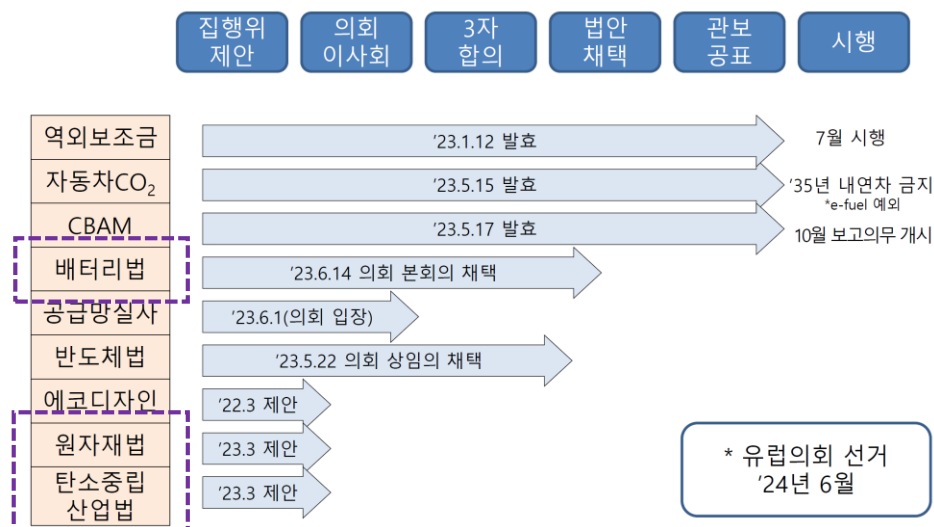
## ② EU 원자재 의존도 감축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24~'25년 발효 전망

- ✓ 16개 전략 원자재(리튬·코발트·망간·니켈·흑연 포함) 경우 '30년까지 단일국 의존도 65% 미만으로 감축

## ③ EU 역내 제조역량 목표(8대 NZ 전략기술에 限, 최소 40%)등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NZIA) '24~'25년 발효 예상

- ✓ 배터리 8대 전략기술 내 포함, 규제완화(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개선), 시장접근(단일 공급원 의존도 65% 경우 제한) 등 영향

### < EU 주요 법안 추진 경과 >



자료 : KOTRA(2023), EU 주요 통상현안 브리핑(인터배터리 유럽 발표자료)

# EU 배터리법 주요 규정

- (탄소발자국 신고 제도)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신고 의무화
  - 탄소발자국: 배터리 제품의 예상 수명기간동안 제공되는 총에너지의 1kWh당 이산화탄소량(kg) 환산 값
-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 일정 비율 사용 의무화
  - 2031년(2036년) 이후 : 코발트 12%(20%), 납 85%, 리튬 4%(10%), 니켈 4%(12%)
- (배터리 여권 제도) 배터리 생산, 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 의무 정보 : 성능, 탄소발자국 등 (공적) / 사용이력, 충방전회수 등 (법적) / 부품정보, 공급처 등 (시장감시용)

## < EU 배터리법 주요 규정 >



# 한국 배터리 기업의 최근 실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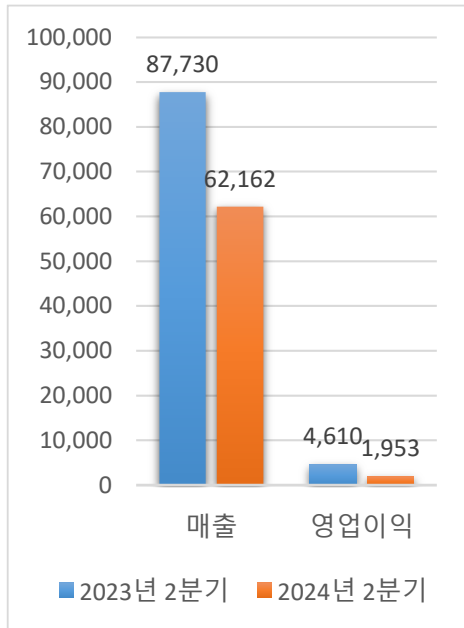
## ■ 한국 배터리 3사 최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진

- LGES, 삼성SDI, SK온 2023년 2분기 매출액 각각 29%, 24%, 60% 감소
- 3사 모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 특히 SK온 영업이익 적자 누적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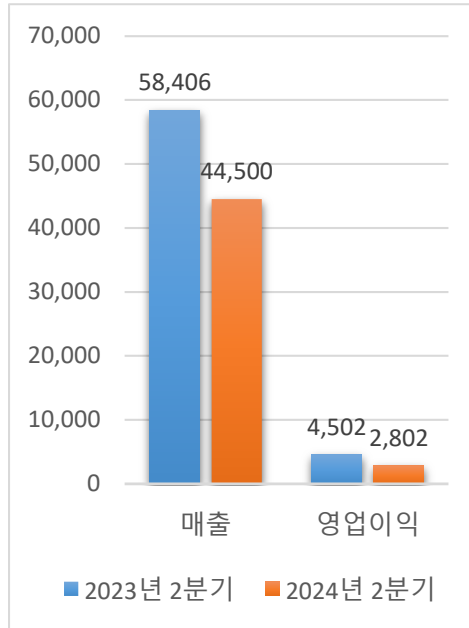
## ■ 최근의 실적 부진은 전기차 캐즘(Chasm)의 영향?

- 총 수요 80%를 전기차에 의존하는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 캐즘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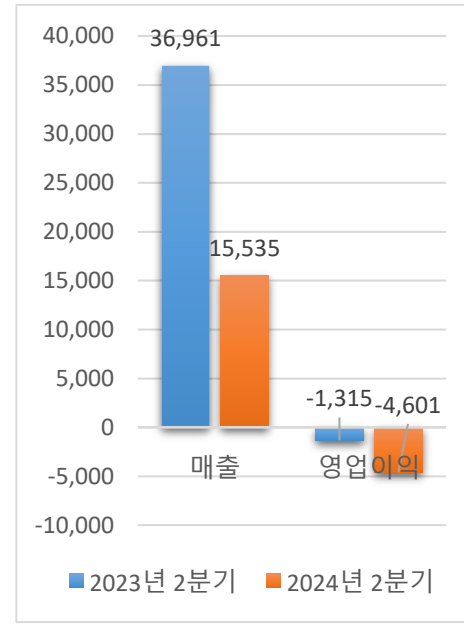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LG에너지솔루션 실적 >



< 2023년 2분기 삼성SDI 실적 >



< 2023년 2분기 SK온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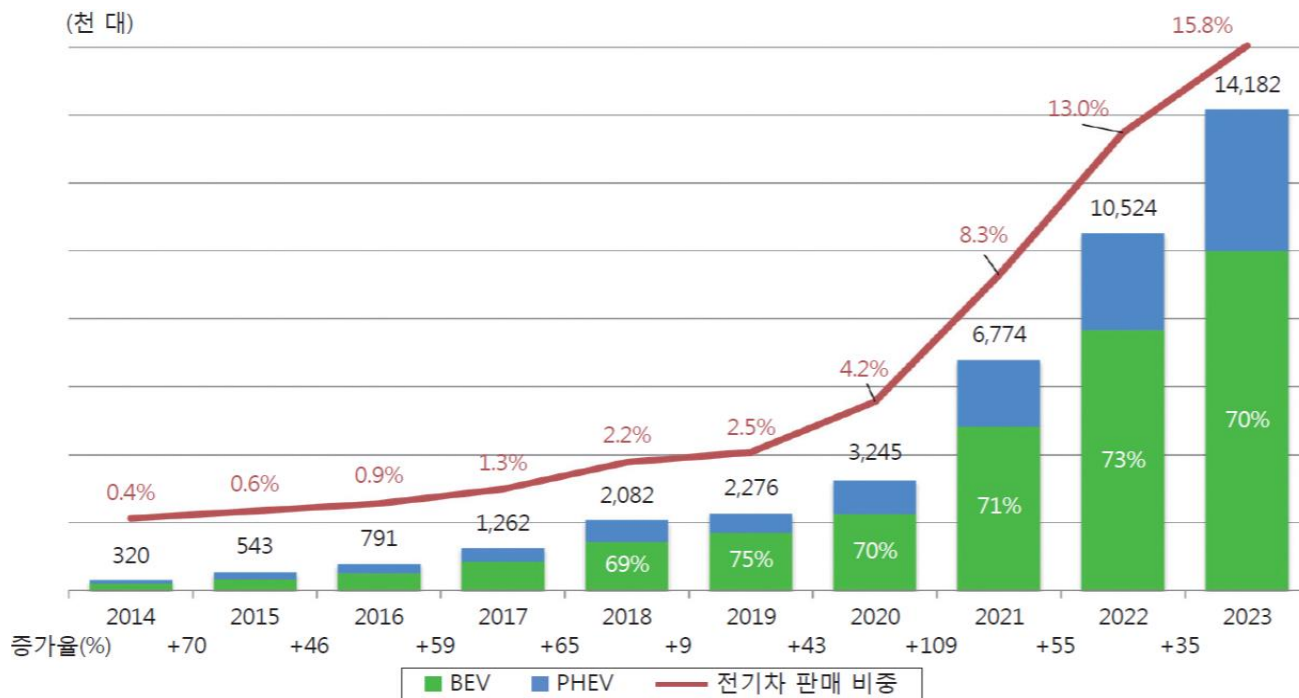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 ■ Fact1 : 세계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판매량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109%까지 치솟았던 증가율이 2022년 55%, 2023년 35%로 하락 추세
-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 중이므로 캐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

< 글로벌 전기차(BEV+PHEV) 판매량 추이 >



자료 : EV Volume



#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동향

## ■ Fact2 : 지역별로 보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둔화추세가 가장 심각

-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한데 따른 영향
- 중국과 미국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까지는 20~40% 대의 증가율 유지

### < 주요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

구분			유럽	중국	미국
2023년	순수 전기차 (BEV)	비중	16.5	22.2	7.2
		증가율	20.7	24.4	54.2
	플러그인 전기차 (PHEV)	비중	7.5	9.3	1.9
		증가율	-9.5	83.9	56.7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비중	28.0	2.8	7.6
		증가율	32.1	4.2	44.1
	전기차 전체 (xEV)	비중	51.9	34.3	16.7
		증가율	20.5	34.0	49.7
2024년 상반기	순수 전기차 (BEV)	비중	14.2	22.6	7.1
		증가율	-2.2	13.9	3.6
	플러그인 전기차 (PHEV)	비중	7.0	16.0	2.1
		증가율	3.9	89.0	33.9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비중	30.7	3.5	9.1
		증가율	16.1	9.4	35.1
	전기차 전체 (xEV)	비중	51.9	42.0	18.3
		증가율	8.8	33.6	20.7

# 전기차 차종별 판매량 동향

## ■ Fact3 : 배터리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BEV는 최근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

- BEV의 배터리 용량은 PHEV의 5배, 하이브리드차의 50배 수준 → BEV 판매량이 가장 중요
-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중국, 미국이 BEV 증가율은 각각 -2.2%, 13.9%, 3.6% 기록
- 특히 유럽은 역(逆)성장세(-2.2%) 돌입 → 유럽은 BEV로는 사실상 캐즘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

### < 주요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

구분			유럽	중국	미국
2023년	순수 전기차 (BEV)	비중	16.5	22.2	7.2
		증가율	20.7	24.4	54.2
	플러그인 전기차 (PHEV)	비중	7.5	9.3	1.9
		증가율	-9.5	83.9	56.7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비중	28.0	2.8	7.6
		증가율	32.1	4.2	44.1
	전기차 전체 (xEV)	비중	51.9	34.3	16.7
		증가율	20.5	34.0	49.7
2024년 상반기	순수 전기차 (BEV)	비중	14.2	22.6	7.1
		증가율	-2.2	13.9	3.6
	플러그인 전기차 (PHEV)	비중	7.0	16.0	2.1
		증가율	3.9	89.0	33.9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비중	30.7	3.5	9.1
		증가율	16.1	9.4	35.1
	전기차 전체 (xEV)	비중	51.9	42.0	18.3
		증가율	8.8	33.6	20.7

# 최근의 실적 부진의 요인 : P vs. Q

## ■ 최근의 기업 실적(매출액) 악화는 판가 하락(P ↓)에 따른 영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

- 매출액( $P \times Q$ )은 P(판가)와 Q(판매량) 모두에 영향을 받음
- Q의 경우 판매량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판매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님.
- 최근의 실적 부진은 니켈, 리튬 등 배터리 광물 가격의 급감이 배터리의 판가(P) 하락에서 비롯

### < 배터리 핵심 광물의 가격 추이 >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구조적인 업황 악화의 전조?

## ■ 구조적인 업황 악화의 전조라기 보다는 경기순환성(Cyclical) 차원의 하락 국면일 가능성

- 일반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은 설비투자에서 실체가동 및 수익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 불황기에 설비투자 해도 호황기 이후 가동. 수익 회수도 나중에 일어나므로 초기 적자 불가피
- 광물 가격이 안정화되면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
- 배터리는 Electrification, Decarbonization, Cordless 3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 → 배터리 업황 다시 반등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이어질 전망

[Decarbonization]



[Electrification]



[Cordless]



# 대응 전략

## ■ 배터리 업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 최근 배터리 업황은 ①지역별 격차가 있고, ②판매량 감소보다는 판가 하락의 영향이 크고, ③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업황 악화 가능성은 낮음
- 최근 글로벌 배터리 수요 둔화로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강화' 중요성 점증
- 투자활력 유지가 관건 : 세제지원, R&D 지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선 등

### < 1조원 규모의 10GWh 배터리 설비투자시 정부 지원금 : 한국 vs. 미국 >

구분		한국	미국
보조금		200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방투자시)	1,300억원 * IJA(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세 제 지 원	생산 세액공제	없음	①6,000억원 * IRA 생산세액공제(AMPC) : \$45/kWh
	투자 세액공제	1,050억원 * 국가전략기술(배터리 포함) 시설투자 세 액공제 15%(대기업 경우)	②3,000억원 * 투자액(1조원)의 3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4)

주 : 1. 미국은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음

2. 가정 : 1조원 투자해 10GWh 규모 5년간 가동, 70% 이상이 기계장비에 해당

3. 투자기업은 대기업에 해당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5%, 공제대상은 기계장비에 국한)

# 대응 전략

## ■ 공급망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필요

- 미국의 IRA 배터리 요건, FEOC 등은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 전망

위기 : 중국 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기회 :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이 한국 시장영향력 높일 기회

- Two track 전략 : 취약품목의 안정적 물량 확보, 경쟁 우위 품목의 주도권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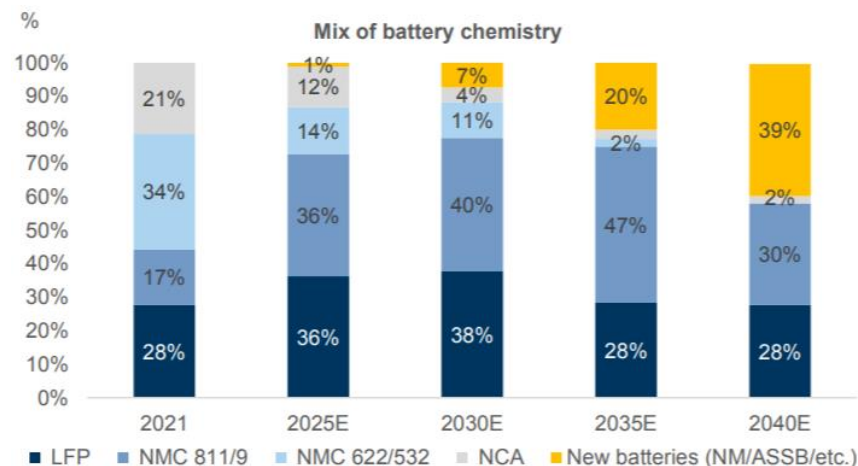
취약품목 : 흑연, 수산화리튬 등 / 경쟁우위 품목 : Cell, 삼원계 양극재 등

### < 한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지표 분석 결과 >

구분	흑연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인조흑연	
특정국 수입의존도	94.1	74.6	87.9
무역수지 (수출-수입)	-1.3	-0.3	-36.4
총교역액 (수출+수입)	1.3	4.0	37.2

자료 : 황경인(2024)

### < 배터리 케미스트리별 세계 시장 점유율 전망 >



자료 : Bhandari et al.(2022)

# 대응 전략

## ■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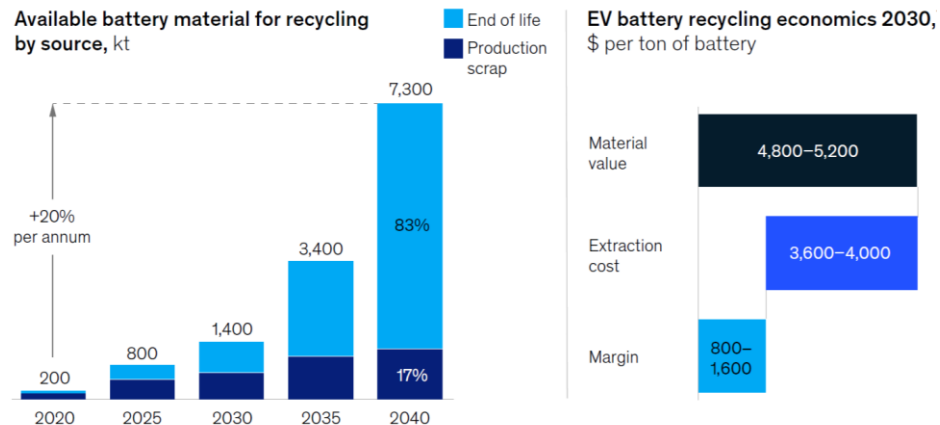
- 사용후 배터리(End-of-Life Battery) 분야는 순환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
- 사용후 배터리는 '성장성', '경제성' 측면 유망 →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
- 주요국도 사용후 배터리 분야 주도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

미국 : IRA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범위에 '북미'에서 생산한 재활용 광물 포함

유럽 :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제 시행

- ESG 규제는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 세제지원 등 강화 필요

### < 배터리 재활용 분야 경제성 >



자료 : McKinsey&Company(2022)

감 사 합 니 다

